

성산대교주변한강둔치사용에관한건의(안)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12. 20.
발의자 : 오인영 의원 외 16인

1. 주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-65주변 성산대교 남단 하천부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유로 현재 생활쓰레기 적환장, 재활용 환적장, 꽃묘장 및 수목 이식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부서인 서울시로부터 원상 복구 요구가 있는 바 영등포구는 서울 서남권의 상업·금융 중심지로서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청소 등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실정으로 성산대교 주변 한강둔치는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고, 폐천 부지는 소유권을 영등포구에 이전하고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이행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는 지역여건상 환경관련 시설부지가 전무한 관계로 성산대교 부지는 청소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도시 미관상 환경방지 시설을 갖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에 하천 점용허가를 이행하여야 하며,
- 하천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천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영등포구로 이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사용(꽃묘 재배 등) 할 수 있도록 함.

성산대교주변한강둔치사용에관한건의문

영등포구는 서울 서남권의 상업금융중심지로서 1일 2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청소업무를 비롯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, 특수한 지역여건상 쓰레기 적환장 등 청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전무한 실정이다. 이러한 여건에서 성산대교 남단의 하천부지는 청소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수 년 전부터 우리 구에서 생활쓰레기 적환장, 재활용 환적장, 꽃묘장 등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청소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.

따라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이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천부지화된 양화동 1-65번지 일대 하천부지 약 13,390㎡를 국가로부터 양여받고, 현재 생활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산대교 남단 진입램프 아래 하천부지 약 30,000㎡ 중 영등포구에서 청소시설 용도로 필요한 약 13,000㎡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.

1. 지역여건상 생활쓰레기 적환장 등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전무한 영등포구를 위해 성산대교 남단 하천부지에 환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라.
2. 성산대교는 영등포구의 관문으로서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성산대교 남단 진입램프 아래의 청소시설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할 수 없으므로 주변정비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이행하라.
3. 양화동 1-65번지 일대 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영등포구에 양여하라.